

중년부터 노년에 걸친 청력장해(1)

귀머거리가 장수한다는 것이 정말일까

청력은 어렸을 때에는 「언어획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다면 어른의 경우는 어떠한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고뇌는 다른 사람들이 간단히 알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점이 있다. 양쪽 귀에 고도의 난청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여러가지 부자유스러운 일이 많아진다. 귀를 통해 얻는 정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도로 하고 어느정도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노력없이도 사람과의 교제도 멀어져 세상과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또 음악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자동차의 크라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일상적인 위험도 나타난다.

눈의 경우와는 달라서 타인에게는 정상인과 같게 보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도 주의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험도 그만큼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청력장해가 있으면 그 분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활약이 쉽지 않다.

40대가 되면 좋은 싫든 이야기를 듣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만, “귀가 멀어지면 장수한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틀린 이야기다. 오히려 귀가 들



리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청력저하의 원인

중년기부터 노년기에 걸쳐 일상생활을 부자유스럽게 하는 청력저하는 2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이성(中耳性)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에 이 두가지의 혼합형인 경우도 있다.

중이성에 의한 것으로는 만성중이염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청력이 저하되어 간다.

내이성에 의한 것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내이성 난청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부자유스러움을 초래하는 것으로는 동맥경화나 기타 내이(內耳)의 병에 의한 경우가 있다. 또한 생리적으로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청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부자유스러울 정도는 아니다.